

보도시점 2025. 6. 9.(월) 12:00 (2025. 6. 10.(화) 조간)

#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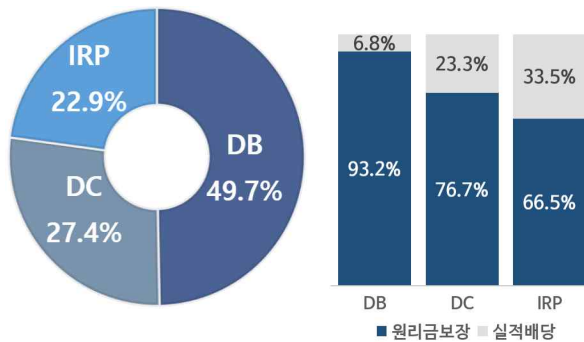
## - 퇴직연금 400조원 돌파, 총 적립금 431.7조원

### <그래프로 살펴본 2024년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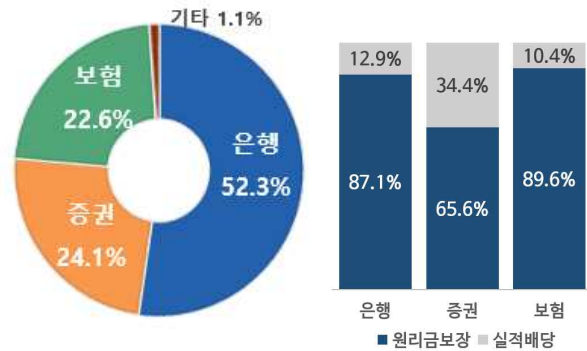
#### 1 퇴직연금 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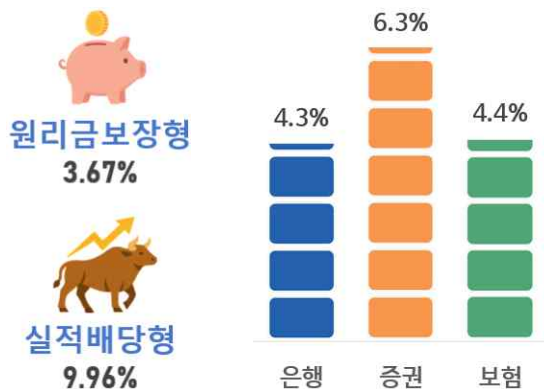
#### 2 제도별 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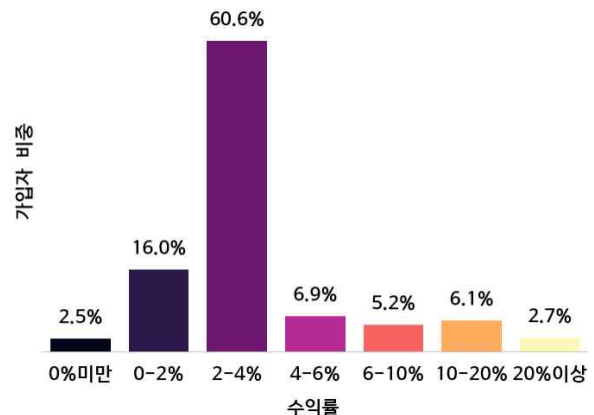
#### 3 권역별 운용현황



#### 4 운용방법별·권역별 수익률



#### 5 개인별 수익률 분포 (DC·IRP)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7조원으로 3년 연속 13%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4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펀드,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한 금액(75.2조원)이 전년 대비 53.3% 증가하는 등 원금보장이 되는 ‘저축’에서 ‘투자’로 패러다임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 적립금 중 실적배당형 비중 추이(%) : ('22) 11.3 → ('23) 12.8 → **(‘24) 17.5**

2024년 중 연간수익률은 4.77%로 최근 2년간 물가수익률이나 정기예금 금리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연금수령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금액 기준 최초로 절반을 상회(57.0%)하는 등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 적립금 운용현황 】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말 대비 49.3조원(12.9%) 증가한 431.7조원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400조원을 돌파하였다.

####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추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적립금(조원)	221.2	255.5	295.6	335.9	382.4	431.7
증감률(%)	16.4	15.5	15.7	13.6	13.8	12.9

제도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정급여형(이하, ‘DB’) 214.6조원, 확정기여형·기업형 IRP(이하, ‘DC’) 118.4조원, 개인형IRP(이하, ‘IRP’) 98.7조원 순으로, DC와 IRP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DC(%) : ('22) 25.6 → ('23) 26.5 → **(‘24) 27.4**

IRP(%) : ('22) 17.2 → ('23) 19.8 → **(‘24) 22.9**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대기성자금 포함)이 356.5조원(82.6%), 실적배당형이 75.2조원(17.4%)으로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DC와 IRP를 중심으로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실적배당형 운용비중(%) : (DB) 6.8(+2.1%p), (DC) 23.3(+5.2%p), (IRP) 33.5(+5.6%p)

실적배당형 상품의 투자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펀드의 경우 TDF\*가 투자 상위를 차지함에 따라 퇴직연금 내 주력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투자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ETF의 경우 국내시장보다는 주로 미국 주식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집중 투자됨을 알 수 있다.

\* TDF(Target Date Fund) : 목표시점(은퇴)에 맞춰 펀드를 구성하는 투자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운용하는 펀드

### '24년말 기준 적립금 투자 상위 공모펀드 및 ETF

(단위 : 조원, %)

순위	구분	유형	명칭	적립금	연수익률*
1	공모펀드	해외주식형	○○○ 글로벌테크놀로지증권투자신탁	1.3	18.50
2		TDF	○○○ 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투자신탁	1.0	18.11
3		TDF	○○○ 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투자신탁	0.9	10.73
4		국내혼합형	○○○ 퇴직연금배당4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0.8	1.01
5		TDF	○○○ 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투자신탁	0.8	13.04
1	ETF	해외주식형	○○○ 미국S&P500	1.9	41.64
2		해외주식형	○○○ 미국나스닥100	1.2	44.31
3		해외주식형	○○○ 미국테크TOP10 INDXX	0.8	73.43
4		해외채권형	○○○ 미국30년국채액티브(H)	0.7	△15.70
5		해외주식형	○○○ 미국S&P500TR	0.6	44.03

\* 금융투자협회 및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온라인)펀드 수익률 기준

### 【 연간수익률 】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24년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4.77%\*로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 2.86%, 2.31%에 대비하여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운용방법별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이 3.67%, 실적배당형이 9.96%로 나타났다.

\* 연간 수익률 추이(%): ('21) 2.00 → ('22) 0.02 → ('23) 5.26 → ('24) 4.77

제도별 수익률은 DB 4.04%, DC 5.18%, IRP 5.86%로, 운용주체가 회사가 아닌 개인이고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제도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였다. 권역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DC와 IRP(합산기준)를 기준으로 은행 및 보험 권역은 4% 이하 수익률 구간에 대부분(은행 84.7%, 보험 77.6%) 몰린 반면, 증권 권역은 고르게 분포된 가운데 연간 수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비율도 31.7%에 달하는 등 여타 권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 권역별 DC·IRP 수익률 구간별 가입자 비중(%)

구 분	0% 미만	0~2%	2~4%	4~6%	6~10%	10~20%	20% 이상
은행	1.4	16.9	66.4	5.8	4.4	4.3	0.9
증권	8.6*	13.9	25.2	9.8	10.8	17.6	14.1
보험	1.7	11.6	64.3	14.6	3.6	3.3	0.8

\* 수익률이 0% 미만인 가입자(8.6%) 중에서 -10% 미만은 2.2%, -10~0%는 6.4%에 해당

## 【 연금수령 】

2024년에 퇴직연금 수령을 개시(만 55세 이상)한 계좌 57.3만좌 중 수령 방법을 일시금 대신 장기간 연금수령 방식으로 선택한 비율은 13.0%\*(7.4만좌)로 전년(10.4%) 대비 2.6%p 증가하였다.

\* 수급 개시 계좌 중 연금수령 비율(%) : ('22) 7.1 → ('23) 10.4 → **( '24) 13.0**

특히, 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령금액 19.2조원 중 57.0%\*에 해당하는 10.9조원이 연금수령에 해당하여 일시금수령 비중을 뛰어넘었다. 계좌당 연금수령액은 1억 4,694만원, 계좌당 일시금 수령액은 1,654만원으로 적립금이 적을수록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형태를 보인다.

\* 수급 개시 금액 중 연금수령 비율(%) : ('22) 41.9 → ('23) 49.7 → **( '24) 57.0**

## 2 나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어떠한가?

금번 백서에서는 특별히 가입자별로 수익률 분포를 살펴보았다.

디폴트옵션\*을 제외한 퇴직급여 적립금은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가 아니라 회사(DB) 또는 본인이 직접 선택(DC, IRP)하여 투자하는 형태이므로 나의 선택에 따른 수익률이 전체 가입자 중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상대비교를 통해 나의 퇴직연금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디폴트옵션 : DC와 IRP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

우선, 통계상 전체 가입자의 수익률 중간값은 3.2%로 평균값인 4.77%보다 낮은 가운데 대부분의 가입자가 2%~4%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은 DB는 가입자(사업장 기준)의 85.3%, DC와 IRP는 각각 67.2%와 53.7%가 바로 이 구간에 해당한다.

### DB·DC·IRP의 수익률 구간별 가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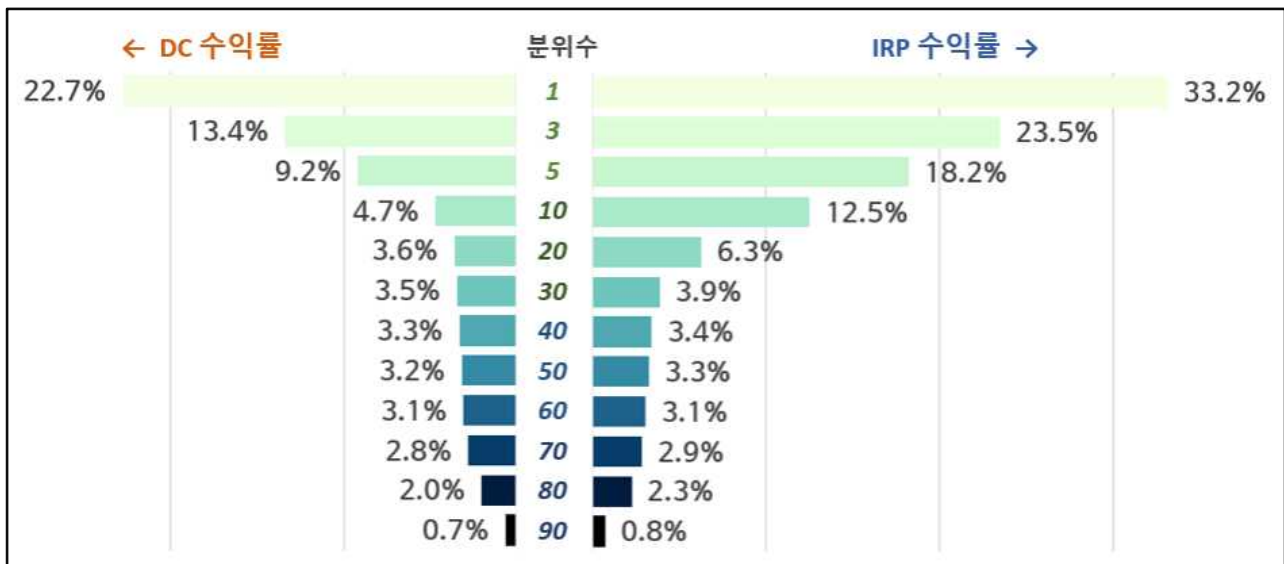
구 분	0% 미만	0~2%	2~4%	4~6%	6~10%	10~20%	20% 이상
DB	0.7	6.1	85.3	7.1	0.5	0.2	0.0
DC	1.3	18.2	67.2	5.6	3.2	3.1	1.4
IRP	3.7	13.7	53.7	8.2	7.4	9.1	4.2

본인의 상대적 위치는 분위수별 수익률 현황을 통해 비교 가능하다. 예를 들어 IRP의 전체 가입자를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1등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33.2%의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90위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0.8%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만약 본인의 2024년중 연금수익률이 6.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명 중 20번째, 즉 상위 20%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DB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보도자료에 첨부된 ‘2024년도 퇴직 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분석’의 「각 제도별 분위수별 수익률 현황」 표를 참고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가입된 직장의 분위수를 추정할 수 있다.

### DC·IRP 분위수별 수익률 현황



참고로 아래 자료는 수익률 상위 10%의 가입자의 자산구성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권역별 주요 회사의 수익률 기준 상위 10% 가입자의 자산구성을 살펴보면 권역 평균 대비 실적배당형의 비중이 3배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은행과 증권사의 IRP 상위 가입자의 경우 각각 84%, 92% 등 대부분의 적립금을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권역별 수익률 기준 상위 10% 계좌의 자산구성

(단위 : %)

운용방법		A은행		B증권		C보험	
		DC	IRP	DC	IRP	DC	IRP
원리금 보장형	예적금 등	35.7	9.6	2.7	1.9	2.2	5.5
	보험 등	3.0	1.2	0.8	0.5	63.8	71.6
	대기성자금	9.2	4.9	7.8	5.4	2.1	1.7
	정부보증채 등	1.7	0.3	0.4	0.2	3.3	3.9
	소계	49.6	16.0	11.7	8.0	71.3	82.8
실적 배당형	집합투자증권	50.4	84.0	87.9	91.8	28.1	16.5
	회사채 등	0	0	0.4	0.2	0.7	0.7
	소계	50.4	84.0	88.3	92.0	28.7	17.2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익률*		4.0	9.3	19.8	29.4	4.9	5.4

\* 상위 10%(100명중 10등) 가입자의 수익률(1~10등의 평균이 아님)

### 3 퇴직연금의 운용을 어려워하는 가입자라면

최근 가입자들은 **유효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안정성**과 함께 **수익률**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과거에 비해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퇴직연금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가입자의 니즈(Needs)를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투자에 익숙지 않거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가입자의 경우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가 직접 구성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여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가입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보유 상품을 그대로 옮길 수 있도록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 최근 6개월간('24.10.31.~'25.4.30.) 적립금 약 3.8조원, 6.5만건이 이전됨

아울러, 최근에는 ‘**로보어드바이저(RA)**’를 개발·이용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를 혁신사업자로 지정하여 퇴직연금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투자일임(IRP 한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투자성과를 원하는 가입자들은 동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 〈붙임〉 2024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분석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책임자	과 장 이준호	044-202-7554
		담당자	사무관 김성현	044-202-7572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	책임자	실 장 이동규	02-3145-5180
		담당자	팀 장 김윤조	02-3145-5190



---

# 2024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분석

---

2025. 6.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 목 차

I. 적립금 현황	1
1. 제도유형별	1
2. 운용방법별	2
3. 금융권역별	5
II. 수익률	7
1. 제도유형별 연간수익률	7
2. 운용방법별 연간수익률	8
3. 금융권역별 연간수익률	9
4. 장기수익률	10
III. 총비용부담률	11
IV. 수급형태	12
<붙임1> 2024년말 기준 퇴직연금 통계	13
<붙임2>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용어 설명	20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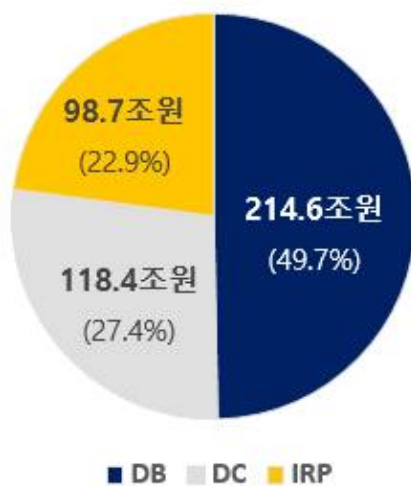
## 제도유형별 (DB · DC · IRP)

- **(전체)** '24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382.4조원) 대비 **49.3조원(12.9%)** 증가한 **431.7조원\***을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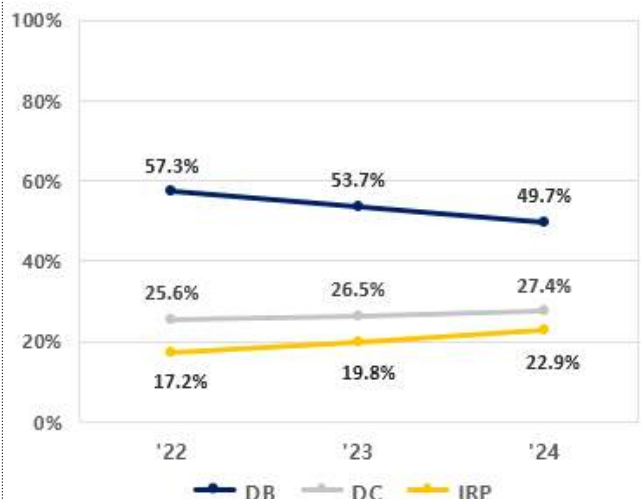
\* 적립금 추이(조원) : ('22년말) 335.9 → ('23년말) 382.4 → **(‘24년말) 431.7**

- **(DB)** DB는 **214.6조원**으로 전년 대비 **9.3조원(4.5%)** 증가
  - DB 적립금 비중은 **49.7%**로 가장 크나, 전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
- **(DC)** DC는 **118.4조원**으로 전년 대비 **17조원(16.8%)** 증가
  - DC 가입자 증가 등으로 작년과 같이 **10% 중반대**의 성장률 지속
- **(IRP)** IRP는 **98.7조원**으로 전년 대비 **23.1조원(30.6%)** 증가
  - IRP의 경우 세제혜택 및 사업자 홍보로 인한 납입액 증가 등으로 2년 연속 30% 이상 증가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중

'24년말 제도유형별 적립금 현황



'22~'24년 제도유형별 적립금 비중 변화



## 적립금 증감 현황

(단위 : 조원, %, %p)

구 분		DB	DC	IRP	합 계
'24년말 <sup>1)</sup>		214.6 (49.7)	118.4 (27.4)	98.7 (22.9)	431.7
'23년말 <sup>1)</sup>		205.3 (53.7)	101.4 (26.5)	75.6 (19.8)	382.4
증감 <sup>1)</sup>		9.3 (△4.0)	17.0 (0.9)	23.1 (3.1)	49.3
증감률		4.5	16.8	30.6	12.9
증감 내역	사용자 납입	22.7	24.6	-	47.3
	가입자 납입	-	0.1	9.5	9.6
	퇴직급여 지급	△1.5	△6.0	△21.1	△28.6
	퇴직급여 이전 <sup>2)</sup>	△10.3	△13.1	-	△23.4
	적립금 이전 <sup>3)</sup>	△6.7	6.7	31.3	31.2
	운용손익	8.4	5.2	4.8	18.4
	기타	△3.3	△0.4	△1.4	△5.2

1) ( ) 안은 연도별 적립금합계 대비 비중 또는 비중의 증감치

2) 퇴직시 DB·DC → IRP로 이전된 금액

3) 계약이전 및 제도전환, 퇴직보험·퇴직신탁 → 퇴직연금으로 이전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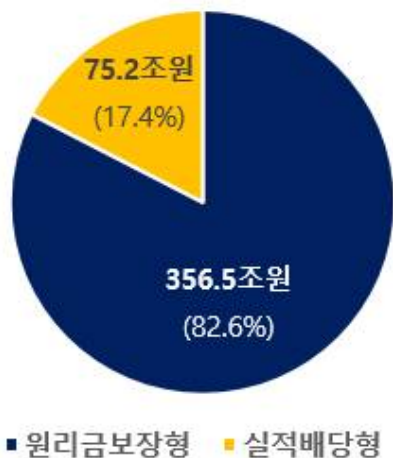
## 2

### 운용방법별 (원리금보장형 · 실적배당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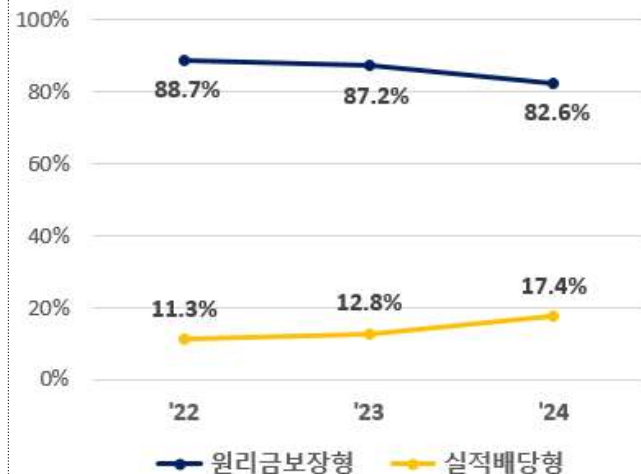
□ **(전체)** 전체 적립금 431.7조원 중 원리금보장형(대기성자금 포함)이 356.5조원(82.6%), 실적배당형이 75.2조원(17.4%)

○ 자산운용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전년 대비 4.6%p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

'24년말 운용방법별 적립금 현황



'22~'24년 운용방법별 적립금 비중 추이



## 가. 제도유형별 추이

- 제도유형별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DB 93.2%, DC 76.7%, IRP 66.5%으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DC·IRP가 상대적으로 낮음
- 전년도와 비교시 DB는 2.1%p, DC는 5.2%p, IRP는 5.6%p 감소하는 등 모든 제도에서 원리금보장형이 감소하는 추세

### 운용방법별 적립금 운용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DB		DC		IRP		전 체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214.6	100.0	118.4	100.0	98.7	100.0	431.7	100.0
원리금보장형	200.0	93.2	90.8	76.7	65.6	66.5	356.5	82.6
실적배당형	14.6	6.8	27.6	23.3	33.1	33.5	75.2	17.4

## 나. 운용방법별 상품 구성

-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보장형 상품 구성은 예·적금(154.6조원, 35.8%), 보험(125.3조원, 29.0%), ELB(34.1조원, 7.9%) 順
- \* 원리금보장상품 규모 증가율(%) : ('22) 16.7 → ('23) 11.9 → **(24) 6.9**
- 예·적금은 은행(우체국 포함)이 130.9조원(전년 대비 +3.5조원), 저축은행 23.6조원(전년 대비 △5.0조원)

### 원리금보장형 적립금 구성

(단위 : 조원, %, %p)

구분	예·적금				보험상품 <sup>2)</sup>		ELB <sup>3)</sup>		기타 <sup>4)</sup>		합계	
	은행 <sup>1)</sup>	비중	저축은행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4년말	130.9	30.3	23.6	5.5	125.3	29.0	34.1	7.9	42.4	9.8	356.4	100.0
'23년말	127.4	38.2	28.6	8.6	118.7	35.6	29.9	9.0	28.8	8.6	333.3	100.0
증가율	2.7		△17.5		5.6		14.0		47.2		6.9	
증감	3.5	△7.9	△5.0	△3.1	6.6	△6.6	4.2	△1.1	13.6	1.2	23.1	

1) 우체국 예·적금 포함      2) 금리확정정보보험(GIC) 및 금리연동형보험(최저이율 보증)

3) 추가연계 파생결합사채(원금 이상 수익 보장,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미발생 등 요건)

4) 대기성자금(34.8조원), 예탁금, 국채, RP,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등

- **(실적배당형)** 실적배당형 상품 구성은 **집합투자증권**(64.4조원, 85.5%), **회사채 등**(10조원, 13.3%), **실적배당형 보험**(0.9조원, 1.2%) 順

### 실적배당형 적립금 구성

(단위 : 조원, %, %p)

구 분	집합투자증권		실적배당형 보험		회사채 등		합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4년말	64.4	85.5	0.9	1.2	10.0	13.3	75.2	100.0
'23년말	42.1	85.7	0.8	1.6	6.2	12.7	49.1	100.0
증가율	53.0		14.0		60.6		53.3	
증 감	22.3	△0.2	0.1	△0.4	3.8	0.6	26.2	

- 공모펀드의 경우 TDF가 상위권에 다수 위치한 반면, ETF의 경우 미국 주식 관련 상품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 '24년말 적립금 기준 상위 7개 공모펀드 및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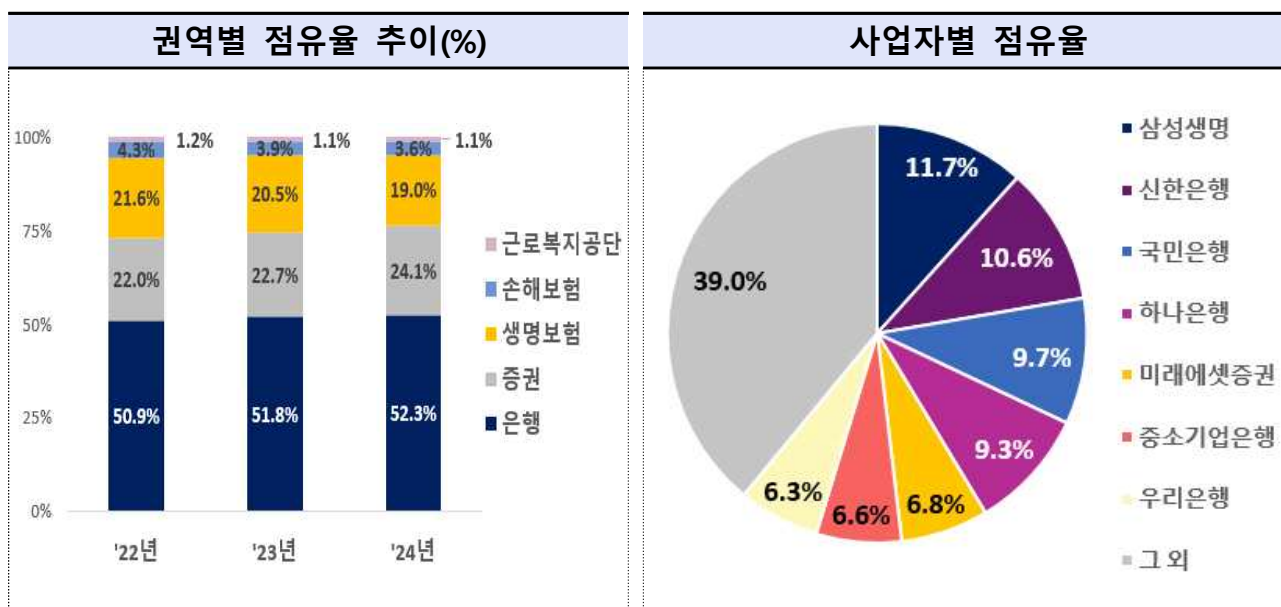
(단위 : 조원, %)

순위	구분	유형	명칭	적립금	연수익률 <sup>1)</sup>
1	공모펀드	해외주식형	○○○ 글로벌테크놀로지증권투자신탁	1.3	18.50
2		TDF	○○○ 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투자신탁	1.0	18.11
3		TDF	○○○ 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투자신탁	0.9	10.73
4		국내혼합형	○○○ 퇴직연금배당4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0.8	1.01
5		TDF	○○○ 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투자신탁	0.8	13.04
6		해외주식형	○○○ 미국그로스증권투자신탁	0.8	24.84
7		국내채권형	○○○ 하이플러스채권증권투자신탁1호(채권)	0.6	5.00
1	ETF	해외주식형	○○○ 미국S&P500	1.9	41.64
2		해외주식형	○○○ 미국나스닥100	1.2	44.31
3		해외주식형	○○○ 미국테크TOP10 INDXX	0.8	73.43
4		해외채권형	○○○ 미국30년국채액티브(H)	0.7	△15.70
5		해외주식형	○○○ 미국S&P500TR	0.6	44.03
6		국내채권형	○○○ 25-10회사채(A+ 이상)액티브	0.6	4.38
7		해외주식형	○○○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0.5	36.30

1) 금융투자협회 및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온라인)펀드 수익률 기준

### 3 금융권역별 (운용관리기관 기준)

- 권역별 적립금은 은행이 225.8조원, 증권이 103.9조원, 생명보험 81.8조원, 손해보험 15.6조원, 근로복지공단 4.5조원 順
- 금액으로 보면 은행이 전년 대비 27.7조원(14.0%) 증가해 가장 컸으며, 증권이 17.2조원(19.8%), 보험이 4.2조원(4.6%) 증가
- 점유율로 보면 은행과 증권은 상승(각각 +0.5%p, +1.4%p)하였으나, 보험은 하락(생보 △1.5%p, 손보 △0.3%p)



- 모든 권역에서 실적배당형 비중이 전년 대비 높아졌으나, 수치는 아직 높지 않음
- 증권 권역은 실적배당형 비중이 34.4%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여타 권역은 여전히 10% 수준에 불과(은행 12.9%, 생보 11.9%, 손보 2.2%)

### 금융권역별 실적배당형 추이

(단위 : 조원, %, %p)

구 분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4년말	29.2	12.9	35.7	34.4	9.8	11.9	0.3	2.2	0.2	4.2	75.2	17.4
'23년말	19.6	9.9	23.2	26.7	5.9	7.6	0.2	1.4	0.2	3.5	49.1	12.8
증감	9.6	3.0	12.5	7.7	3.9	4.3	0.1	0.8	0.0	0.7	26.1	4.6

## 참고

## 권역별 수익률 상위 10% 가입자의 자산구성

◆ 권역별 주요회사의 수익률 상위 10% 가입자의 자산구성(합계기준)을 살펴보면, 권역 평균 대비 실적배당형의 비중이 3배 이상 높은 특징

- **(은행)** 특히 A은행 IRP 가입자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84%에 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9.3% 이상의 수익률 달성
- **(증권)** B증권의 경우도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DC 88.3%, IRP 92%로 높고, 각각 19.8%, 29.4% 이상의 수익률 시현
- **(보험)** 반면, C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특성상 보험계약 비중이 70% 정도이고 실적배당형 상품은 20% 수준으로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4.9% 이상의 수익률 시현

### 권역별 수익률 기준 상위 10% 계좌의 자산구성

(단위 : %)

운용방법		A은행		B증권		C보험	
		DC	IRP	DC	IRP	DC	IRP
원리금 보장형	예적금 등	35.7	9.6	2.7	1.9	2.2	5.5
	보험 등	3.0	1.2	0.8	0.5	63.8	71.6
	대기성자금	9.2	4.9	7.8	5.4	2.1	1.7
	정부보증채 등	1.7	0.3	0.4	0.2	3.3	3.9
	소계	49.6	16.0	11.7	8.0	71.3	82.8
실적 배당형	집합투자증권	50.4	84.0	87.9	91.8	28.1	16.5
	회사채 등	0	0	0.4	0.2	0.7	0.7
	소계	50.4	84.0	88.3	92.0	28.7	17.2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익률*		4.0	9.3	19.8	29.4	4.9	5.4

\* 상위 10%(100명중 10등) 가입자의 수익률(1~10등의 평균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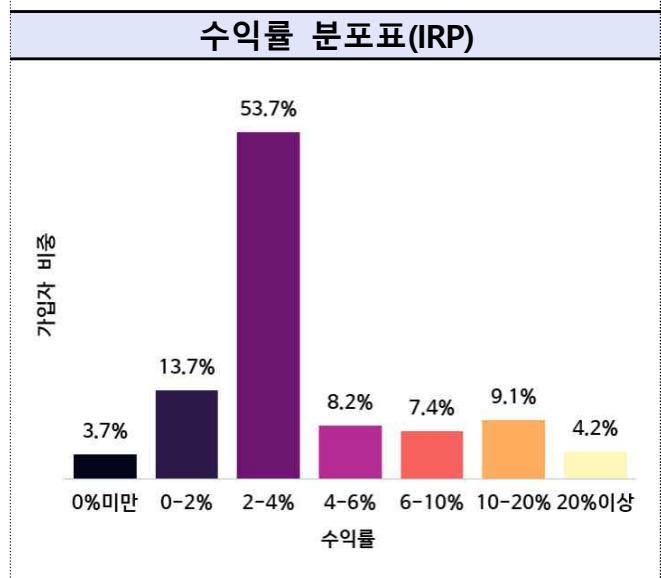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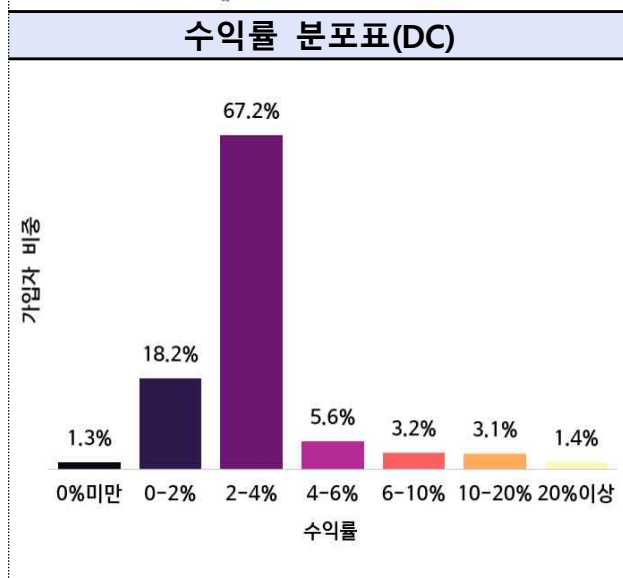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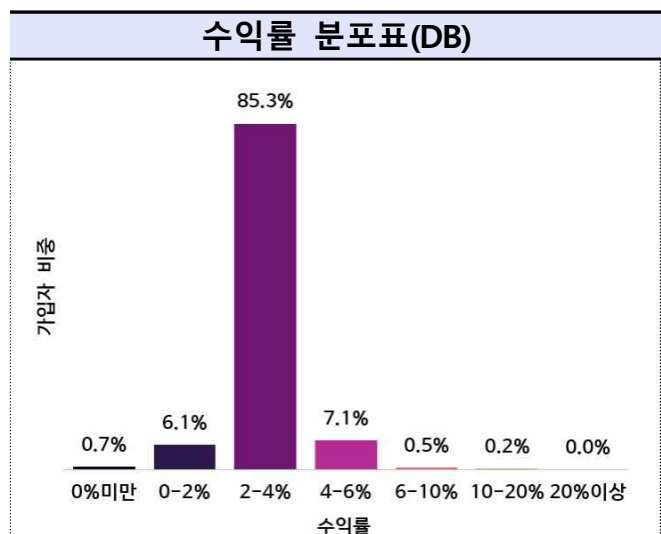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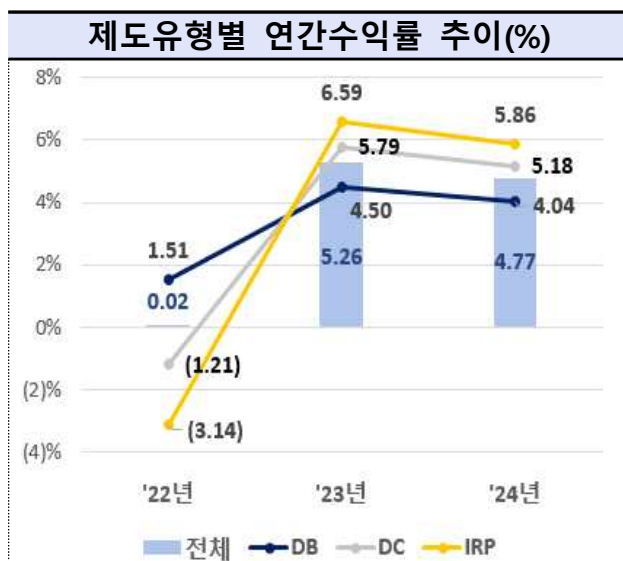
## II

## 수익률

### 1

### 제도유형별 연간수익률

- **(전체)** 연간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4.77%로 전년 대비 0.49%p 하락
- **(제도유형별)** IRP 5.86%, DC 5.18%, DB 4.04% 順으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IRP가 가장 높은 수익률 시현
- \* '24년 제도별 실적배당형 비중(%) : (DB) 6.8 (DC) 23.3 (IRP) 33.5
- 수익률 분포를 보면 2~4% 구간에 DB 85.3%, DC 67.2%, IRP 53.7%의 가입자가 몰려있으며, IRP가 상대적으로 넓은 분포를 보임



□ **(원리금보장형)** 전년(4.08%) 대비 0.41%p 하락한 3.67%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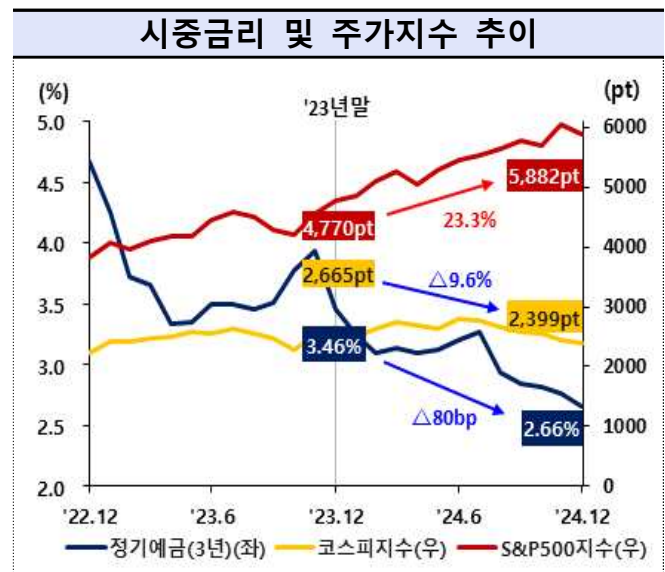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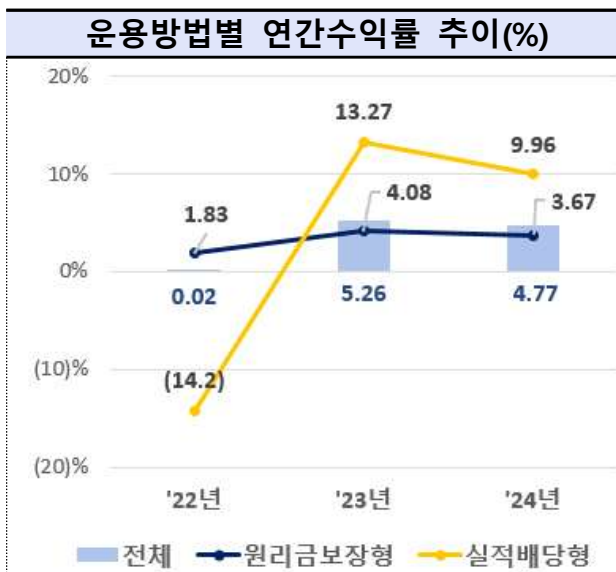
○ '23년 후반부터 '24년에 걸친 금리 인하\* 등에 주로 기인

\* 기준금리 추이(%) : ('23.1) 3.5 → ('24.10) 3.25 → **(24.11) 3.0**

□ **(실적배당형)** 전년(13.27%) 대비 3.31%p 하락한 9.96% 달성

○ '24년도 주식시장 수익률이 '23년 대비 낮아진 것이 주요 원인

\* 주가지수 변동률('23년→'24년) : (코스피) 18.7%→**△9.6%**, (S&P) 24.2% →**23.3%**, (나스닥) 43.4% → **28.6%**



### 제도유형별/운용방법별 연간수익률 현황

(단위 : %, %p)

구 분		DB	DC	IRP	전 체
전체	'24년말	4.04	5.18	5.86	4.77
	'23년말	4.50	5.79	6.59	5.26
	증감	△0.46	△0.61	△0.73	△0.49
원리금 보장형	'24년말	3.81	3.51	3.45	3.67
	'23년말	4.26	3.87	3.75	4.08
	증감	△0.45	△0.36	△0.30	△0.41
실적 배당형	'24년말	7.10	10.66	10.64	9.96
	'23년말	9.54	14.44	13.93	13.27
	증감	△2.44	△3.78	△3.29	△3.31

\* 수수료 차감 후 적립금을 기반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 (권역별) 증권이 수익률이 6.33%로 가장 높으며, 생명보험(4.43%), 은행(4.25%), 손해보험(3.93%), 근로복지공단(3.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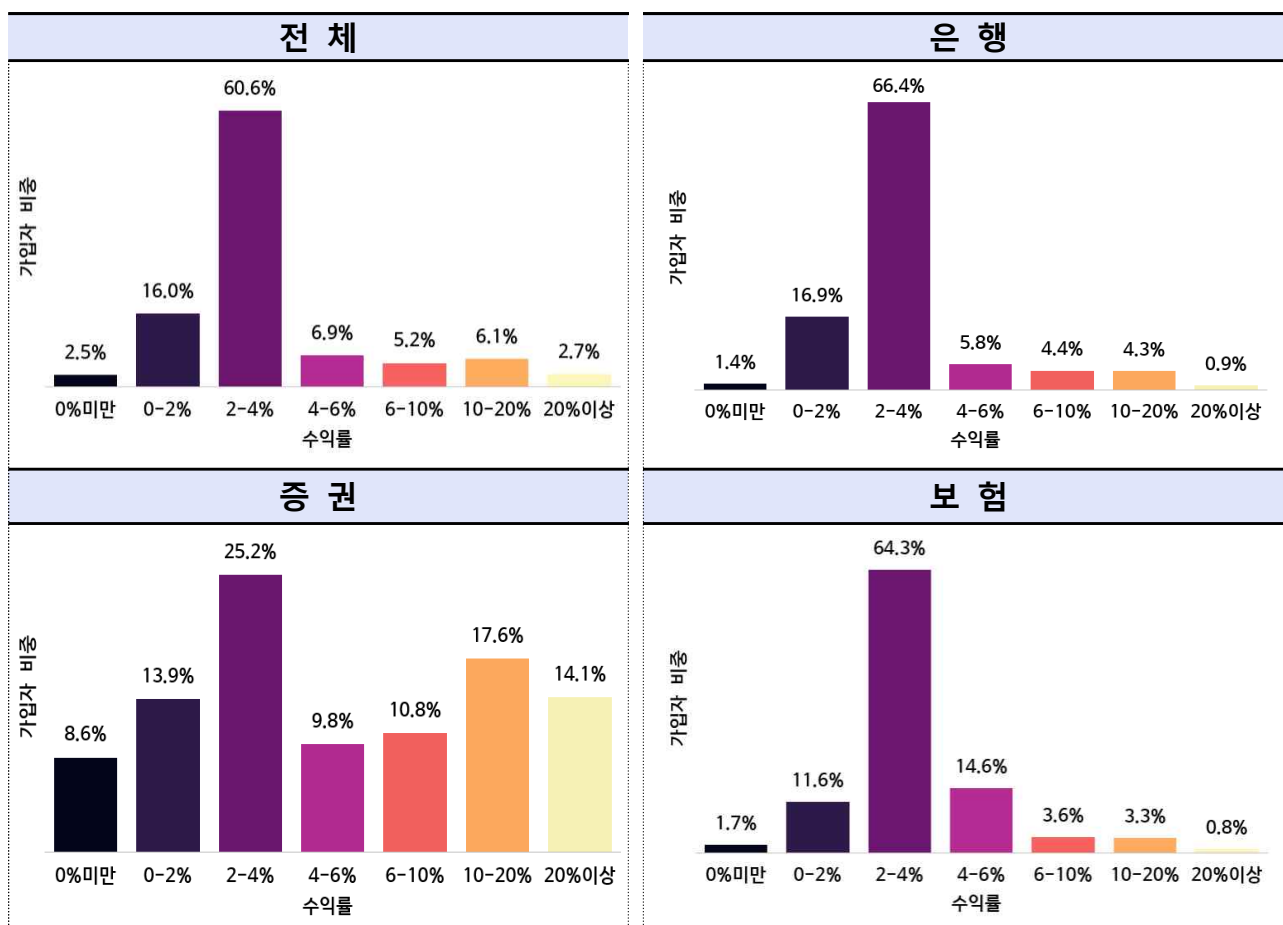
-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권역 수익률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실적배당형 비중이 큰 증권이 수익률이 가장 크게 하락( $\Delta 0.78\%p$ )

### 금융권역별 연간수익률 현황

(단위 : %, %p)

구 분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전체
'24년	4.25	6.33	4.43	3.93	3.60	4.77
원리금보장형	3.43	4.03	3.94	3.90	3.47	3.67
실적배당형	9.74	10.73	8.03	5.55	6.51	9.96
'23년	4.87	7.11	4.37	4.63	3.94	5.26
증감	$\Delta 0.62$	$\Delta 0.78$	0.06	$\Delta 0.70$	$\Delta 0.34$	$\Delta 0.49$

- 개인별 수익률 구간별 분포(DC·IRP 합계)를 보면 증권은 전 구간에 고르게 나타난 반면, 타 권역은 원리금보장형 위주여서 2~4% 구간에 쏠림



- **(전체)** '24년말 기준 5년 및 10년 연환산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각각 2.86%와 2.31%를 시현
- **(제도유형별)** DB가 2.67%(5년) 및 2.23%(10년), DC가 3.07%(5년) 및 2.5%(10년), IRP가 3.15%(5년) 및 2.33%(10년)을 기록
  - **(운용방법별)** 원리금보장형이 2.49%(5년)·2.09%(10년), 실적배당형이 4.77%(5년)·3.44%(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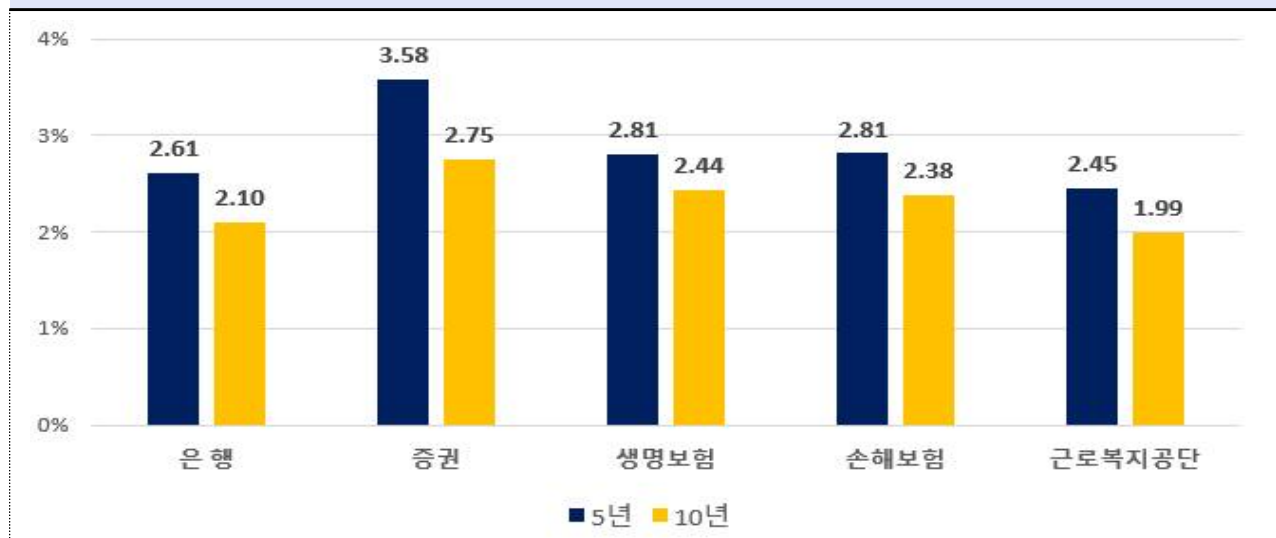
### 제도유형별/운용방법별 장기수익률 현황

(단위 : %)

구 분		DB	DC	IRP	전체
전체	5년	2.67	3.07	3.15	2.86
	10년	2.23	2.50	2.33	2.31
원리금보장형	5년	2.59	2.45	2.23	2.49
	10년	2.15	2.17	1.83	2.09
실적배당형	5년	3.77	5.09	4.96	4.77
	10년	3.44	3.56	3.34	3.44

- **(권역별)** 증권 권역의 5년 및 10년 연환산 수익률(각각 3.58%, 2.75%)이 가장 높음

### 권역별 장기수익률 현황



### Ⅲ

## 총비용부담률

□ **(전체)** 총비용부담률\*은 0.414%로 전년(0.372%) 대비 0.042%p 상승

\* 연간 총비용(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비용) ÷ 운용·자산 일평균적립금 합계

○ '23년도 연말 휴일의 기저효과\* 및 정확한 총비용부담률 산정을 위해 산식을 개정\*\*함에 따라 총비용부담률이 다소 상승

\* '23.12.30.~31.이 휴일이어서 관련 수수료가 2024년도에 납입됨

\*\* (前) 운용·자산 기말적립금(432.0조원) → (後) 운용·자산 평균적립금 합계(396.2조원)

### 총비용부담률 현황

(단위 : %, %p)

구 분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비용	전 체
'24년	0.158	0.178	0.078	0.414
'23년	0.140	0.160	0.072	0.372
증감	0.018	0.018	0.006	0.042

□ **(제도유형별)** DB와 DC는 전년 대비 총비용부담률이 각각 0.065%p, 0.031%p 상승하였고, IRP는 0.011%p 하락

○ 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및 운용손익에 따른 합리적 수수료 부과 시행 등으로 IRP의 총비용부담률이 하락

### 제도유형별 현황

(단위 : %, %p)

구 분	DB	DC	IRP	전 체
'24년	0.388	0.539	0.307	0.414
'23년	0.323	0.508	0.318	0.372
증감	0.065	0.031	△0.011	0.042

□ **(권역별)** 근로복지공단\* 특성상 총비용부담률이 가장 낮으며(0.076%), 손해보험(0.339%), 증권(0.345%), 생명보험(0.371%), 은행(0.474%) 순

\*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운용관리계약 체결

### 금융권역별 현황

(단위: %, %p)

구 분	은 행	증 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24년	0.474	0.345	0.371	0.339	0.076
'23년	0.412	0.325	0.333	0.306	0.078
증감	0.062	0.020	0.038	0.033	△0.002

## IV

## 수급형태(연금·일시금)

- **(수령비율)** '24년 중 퇴직연금 수급(만 55세 이상)을 개시한 계좌(57.3만좌) 중 13%(7.4만좌)가 연금수령\*을, 87%(49.9만좌)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

\* 수급 개시 계좌 중 연금수령 비율(%): ('22년) 7.1 → ('23년) 10.4 → **(24년) 13.0**

- 금액 기준으로는 총 19.2조원 중 57%\*(10.9조원)가 연금으로 수령하여 처음으로 50%를 돌파

\* 수급 개시 금액 중 연금수령 비율(%): ('22년) 41.9% → ('23년) 49.7 → **(24년) 57.0**

- **(평균수령액)** 연금 수령의 계좌당 평균 수령액은 1억 4,694만원으로, 일시금 수령시의 평균 수령액(1,654만원)의 8.9배 수준

- 적립금 규모가 소액일수록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향

##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단위 : 좌, 억원, %)

구 분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합 계	
		비 중		비 중		비 중
계좌수(A)	74,367	13.0	499,069	87.0	573,436	100.0
금액(B)	109,277	57.0	82,544	43.0	191,821	100.0
계좌당 금액(B/A)	1.47	-	0.17	-	0.33	-

- **(수령주기)** '24년말 현재 연금을 수령중인 계좌(18.1만좌)의 77.8% (14.1만좌)가 月 단위로 수령

## 수령주기별 연금수령 현황

(단위 : 좌, %)

구 분	월		분기		반기		년		기타		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계좌수	141,249	77.8	2,189	1.2	941	0.52	21,801	12.0	15,321	8.4	181,501	100.0

## 1. 적립금 규모

### □ 운용관리계약 기준(잔액기준)

(단위 : 억원, %)

권역	구분	DB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전 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은행	'24.12월	933,505	43.5	689,975	59.0	13,243	91.1	620,975	62.9	2,257,698	52.3
	'23.12월	870,151	42.4	604,062	60.4	12,330	91.7	493,952	65.3	1,980,495	51.8
증권	'24.12월	448,405	20.9	272,027	23.3	647	4.5	318,197	32.2	1,039,276	24.1
	'23.12월	436,942	21.3	208,108	20.8	470	3.5	221,895	29.3	867,415	22.7
생보	'24.12월	633,180	29.5	141,411	12.1	545	3.7	43,233	4.4	818,368	19.0
	'23.12월	622,623	30.3	125,422	12.5	541	4.0	35,856	4.7	784,442	20.5
손보	'24.12월	130,649	6.1	21,007	1.8	40	0.3	4,594	0.5	156,290	3.6
	'23.12월	123,646	6.0	19,822	2.0	40	0.3	4,503	0.6	148,011	3.9
근로 복지 공단	'24.12월	-	-	45,270	3.9	60	0.4	43	0.0	45,373	1.1
	'23.12월	-	-	43,355	4.3	59	0.4	42	0.0	43,456	1.1
계	'24.12월	2,145,739	49.7	1,169,690	27.1	14,535	0.3	987,041	22.9	4,317,005	100.0
	'23.12월	2,053,363	100.0	1,000,768	100.0	13,440	100.0	756,247	100.0	3,823,819	100.0

※ 권역간 비중이며, 근로복지공단은 DB 미취급



## 2. 적립금 운용 현황

### □ 제도유형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DB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	예·적금(은행)	583,563	27.2	412,453	35.3	7,165	49.3	263,688	26.7	1,266,870	29.3
	예·적금(저축은행)	35,634	1.7	77,519	6.6	1,042	7.2	122,296	12.4	236,492	5.5
	예·적금(우체국)	18,682	0.9	8,604	0.7	68	0.5	15,200	1.5	42,554	1.0
	예탁금(한증금)	18,056	0.8	10,237	0.9	44	0.3	11,975	1.2	40,313	0.9
	금리확정형 보험	1,001,743	46.7	146,416	12.5	364	2.5	53,971	5.5	1,202,493	27.9
	금리연동형 보험	4,933	0.2	36,318	3.1	258	1.8	9,339	0.9	50,848	1.2
	국채	1,298	0.1	9,675	0.8	13	0.1	17,351	1.8	28,338	0.7
	통안증권	-	-	-	-	-	-	-	-	-	-
	기타정부보증채	-	-	4	0.0	-	-	615	0.1	619	0.0
	원리금보장형 ELB	311,320	14.5	12,464	1.1	34	0.2	17,679	1.8	341,496	7.9
	RP	2,021	0.1	1,858	0.2	4	0.0	1,659	0.2	5,540	0.1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516	0.0	190	0.0	-	-	338	0.0	1,044	0.0
	소계	1,977,766	92.2	715,738	61.2	8,992	61.9	514,111	52.1	3,216,607	74.5
실적배당	실적배당형보험	794	0.0	6,234	0.5	15	0.1	1,666	0.2	8,709	0.2
	집합투자증권	129,975	6.1	233,124	19.9	2,027	13.9	278,433	28.2	643,559	14.9
	회사채 등	15,260	0.7	34,284	2.9	44	0.3	50,588	5.1	100,177	2.3
	소계	146,029	6.8	273,643	23.4	2,086	14.4	330,688	33.5	752,445	17.4
	대기성자금	21,944	1.0	180,309	15.4	3,456	23.8	142,243	14.4	347,953	8.1
합계		2,145,739	100.0	1,169,690	100.0	14,535	100.0	987,041	100.0	4,317,005	100.0

### □ 제도유형별 집합투자증권 세부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DB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권 집합 투자 증권 <sup>1)</sup>	주식형	6,283	4.8	106,279	44.4	635	31.1	111,632	39.9	224,830	34.5
	주식혼합형	7,671	5.9	33,530	14.0	446	21.9	57,062	20.4	98,709	15.1
	채권혼합형	15,542	11.9	44,491	18.6	582	28.5	38,310	13.7	98,926	15.2
	채권형	84,102	64.3	35,178	14.7	243	11.9	49,337	17.6	168,860	25.9
	기타	2,567	2.0	1,974	0.8	18	0.9	1,857	0.7	6,416	1.0
	소계	116,166	88.8	221,452	92.5	1,925	94.3	258,198	92.2	597,741	91.6
부동산집합투자증권		1,540	1.2	153	0.1	1	0.0	302	0.1	1,996	0.3
특별자산집합투자증권		145	0.1	232	0.1	1	0.0	157	0.1	535	0.1
혼합집합투자증권		12,918	9.9	17,520	7.3	115	5.6	21,444	7.7	51,997	8.0
합계 <sup>2)</sup>		130,768	100.0	239,358	100.0	2,042	100.0	280,100	100.0	652,268	100.0
TDF		2,078	1.6	51,191	21.4	562	27.5	80,313	28.7	134,145	20.6
		적격TDF <sup>3)</sup>	935	0.7	51,120	21.4	562	27.5	80,128	28.6	132,745

1) 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주식혼합형 : 주식편입비율 40% 초과 60% 미만,

채권혼합형: 주식편입비율 0% 초과 40% 이하, 채권형 : 주식편입비율 0%

2) 실적배당형보험을 통해 투자된 집합투자증권 적립금도 포함하여 집계

3)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2(적격 집합투자증권 인정기준)를 충족한 TDF

## □ 권역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	예·적금(은행)	1,112,707	49.3	83,641	8.0	56,284	6.9	7,428	4.8	6,811	15.0	1,266,870	29.3
	예·적금(저축은행)	184,235	8.2	47,382	4.6	4,000	0.5	667	0.4	208	0.5	236,492	5.5
	예·적금(우체국)	14,816	0.7	25,919	2.5	1,270	0.2	550	0.4	-	-	42,554	1.0
	예·타금(한증금)	2,242	0.1	37,856	3.6	-	-	215	0.1	-	-	40,313	0.9
	금리확정형 보험	295,193	13.1	179,635	17.3	570,716	69.7	125,874	80.5	31,075	68.5	1,202,493	27.9
	금리연동형 보험	6	0.0	417	0.0	39,932	4.9	8,711	5.6	1,781	3.9	50,848	1.2
	국채	618	0.0	27,720	2.7	-	-	-	-	-	-	28,338	0.7
	통안증권	-	-	-	-	-	-	-	-	-	-	-	-
	기타정부보증채	-	-	619	0.1	-	-	-	-	-	-	619	0.0
	원리금보장형 ELB	127,461	5.6	162,882	15.7	42,274	5.2	8,879	5.7	-	-	341,496	7.9
	RP	-	-	5,540	0.5	-	-	-	-	-	-	5,540	0.1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312	0.0	526	0.1	206	0.0	-	-	-	-	1,044	0.0
	소계	1,737,590	77.0	572,137	55.1	714,682	87.3	152,324	97.5	39,874	87.9	3,216,607	74.5
실적배당	실적배당형보험	-	0.0	-	-	6,318	0.8	2,005	1.3	386	0.8	8,709	0.2
	집합투자증권	290,994	12.9	258,310	24.9	91,351	11.2	1,364	0.9	1,540	3.4	643,559	14.9
	회사채 등	1,254	0.1	98,909	9.5	15	0.0	-	-	-	-	100,177	2.3
	소계	292,248	12.9	357,219	34.4	97,684	11.9	3,368	2.2	1,926	4.2	752,445	17.4
대기성자금		227,860	10.1	109,920	10.6	6,002	0.7	598	0.4	3,573	7.9	347,953	8.1
합계		2,257,698	100.0	1,039,276	100.0	818,368	100.0	156,290	100.0	45,373	100.0	4,317,005	100.0

## □ 권역별 집합투자증권 세부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권 집합 투자 증권 <sup>1)</sup>	주식형	93,743	32.2	112,734	43.6	16,792	17.2	430	12.8	1,130	58.7	224,830	34.5
	주식혼합형	66,936	23.0	25,849	10.0	5,283	5.4	641	19.0	-	-	98,709	15.1
	채권혼합형	50,646	17.4	33,573	13.0	12,676	13.0	1,422	42.2	609	31.6	98,926	15.2
	채권형	50,573	17.4	57,778	22.4	59,759	61.2	563	16.7	187	9.7	168,860	25.9
	기타	2,829	1.0	2,558	1.0	761	0.8	268	7.9	-	-	6,416	1.0
	소계	264,727	91.0	232,492	90.0	95,272	97.5	3,324	98.7	1,926	100.0	597,741	91.6
부동산집합투자증권		159	0.1	935	0.4	901	0.9	0.0	0.0	-	-	1,996	0.3
특별자산집합투자증권		355	0.1	61	0.0	119	0.1	-	-	-	-	535	0.1
혼합집합투자증권		25,753	8.8	24,822	9.6	1,378	1.4	44	1.3	-	-	51,997	8.0
합계 <sup>2)</sup>		290,994	100.0	258,310	100.0	97,670	100.0	3,368	100.0	1,926	100.0	652,268	100.0
TDF		87,598	30.1	42,381	16.4	2,849	2.9	616	18.3	866	45.0	134,145	20.6
적격TDF <sup>3)</sup>		87,352	30.0	41,227	16.0	2,849	2.9	616	18.3	866	45.0	132,745	20.4

- 1) 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주식혼합형: 주식편입비율 40% 초과 60% 미만, 채권혼합형: 주식편입비율 0% 초과 40% 이하, 채권형: 주식편입비율 0%
- 2) 실적배당형보험을 통해 투자된 집합투자증권 적립금도 포함하여 집계
- 3)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2(적격 집합투자증권 인정기준)를 충족한 T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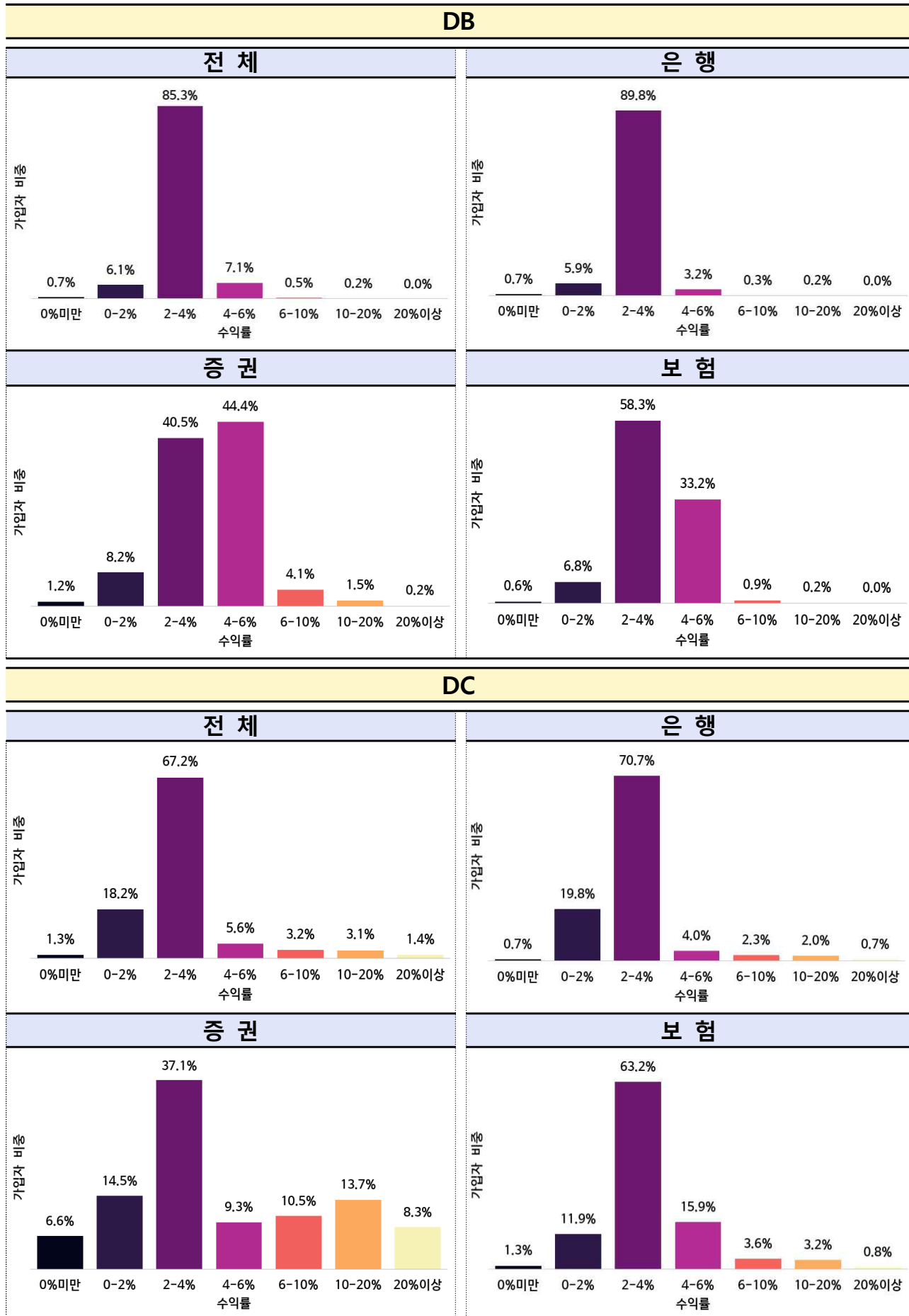
### 3. 운용관리사업자별 · 제도유형별 적립금 및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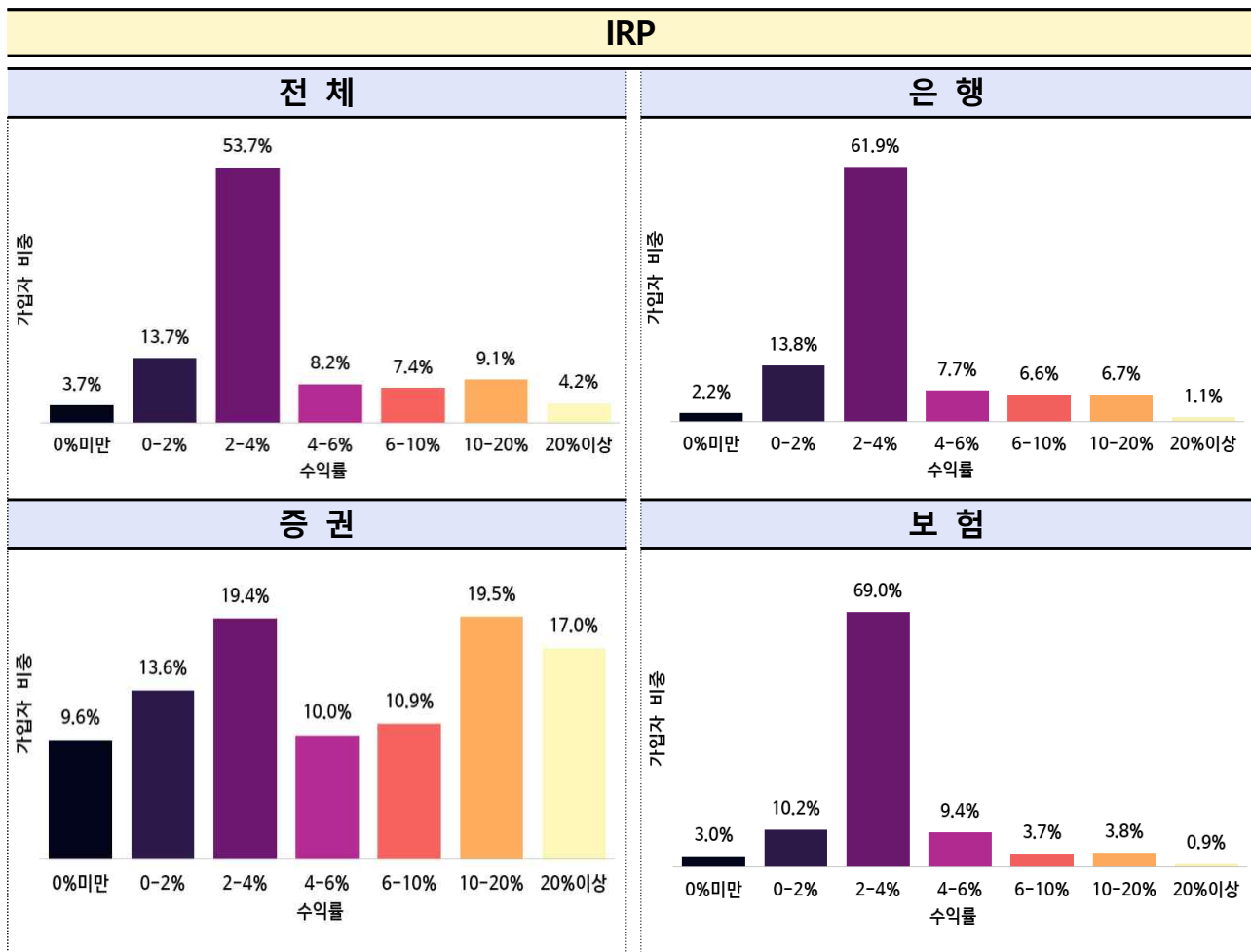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권역	사업자명	DB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전체	권역내 점유율
은행 (12)	신한은행	167,027	134,186	1,897	156,044	459,154	20.3
	국민은행	121,365	138,500	3,994	156,622	420,482	18.6
	하나은행	168,658	109,012	482	124,584	402,736	17.8
	중소기업은행	121,874	132,784	1,625	27,482	283,765	12.6
	우리은행	108,904	71,349	945	89,791	270,989	12.0
	농협은행	118,968	64,581	2,027	48,976	234,552	10.4
	한국산업은행	80,431	5,651	1	1,328	87,411	3.9
	부산은행	16,392	8,364	197	5,917	30,868	1.4
	아이엠뱅크	12,539	10,283	418	4,055	27,295	1.2
	경남은행	10,973	6,665	593	3,882	22,112	1.0
	광주은행	6,376	8,599	1,063	2,296	18,333	0.8
	제주은행	-	0	-	0	0	0.0
	소계	933,505	689,975	13,243	620,975	2,257,698	100.0
증권 (14)	미래에셋증권	63,058	118,450	296	110,143	291,946	28.1
	현대차증권	152,430	5,612	-	17,111	175,153	16.9
	한국투자증권	74,137	37,888	121	46,002	158,148	15.2
	삼성증권	41,289	49,545	-	63,023	153,858	14.8
	NH투자증권	38,189	17,233	199	25,652	81,272	7.8
	KB증권	35,215	12,570	-	18,597	66,383	6.4
	신한투자증권	24,647	16,038	-	16,865	57,550	5.5
	대신증권	6,791	6,063	-	5,321	18,175	1.7
	하나증권	7,617	2,374	1	4,418	14,410	1.4
	아이엠증권	3,602	1,174	-	2,218	6,994	0.7
	한화투자증권	-	3,136	-	3,848	6,984	0.7
	신영증권	1,135	1,252	-	874	3,261	0.3
	우리투자증권	-	-	-	2,768	2,768	0.3
	유안타증권	294	693	30	1,357	2,373	0.2
	소계	448,405	272,027	647	318,197	1,039,276	100.0
생보 (10)	삼성생명	400,319	74,730	316	27,900	503,266	61.5
	교보생명	95,356	33,772	33	6,675	135,835	16.6
	한화생명	55,192	8,635	13	1,850	65,690	8.0
	미래에셋생명	38,513	15,232	-	3,719	57,464	7.0
	푸른현대생명	14,488	415	-	45	14,948	1.8
	IBK연금보험	6,153	4,392	182	2,647	13,373	1.6
	흥국생명	8,007	1,930	-	109	10,046	1.2
	동양생명	7,897	648	-	143	8,687	1.1
	신한라이프	5,108	979	-	85	6,172	0.8
	DB생명	2,148	678	-	60	2,886	0.4
	소계	633,180	141,411	545	43,233	818,368	100.0
손보 (6)	삼성화재	58,243	9,714	0	2,380	70,337	45.0
	KB손보	32,248	5,166	-	1,110	38,525	24.6
	DB손보	15,592	1,056	40	160	16,848	10.8
	현대해상	12,524	2,713	-	537	15,773	10.1
	롯데손보	12,026	2,356	-	407	14,789	9.5
	한화손보	17	-	-	-	17	0.0
	소계	130,649	21,007	40	4,594	156,290	100.0
근로복지공단		-	45,270	60	43	45,373	100.0
합계		2,145,739	1,169,690	14,535	987,041	4,317,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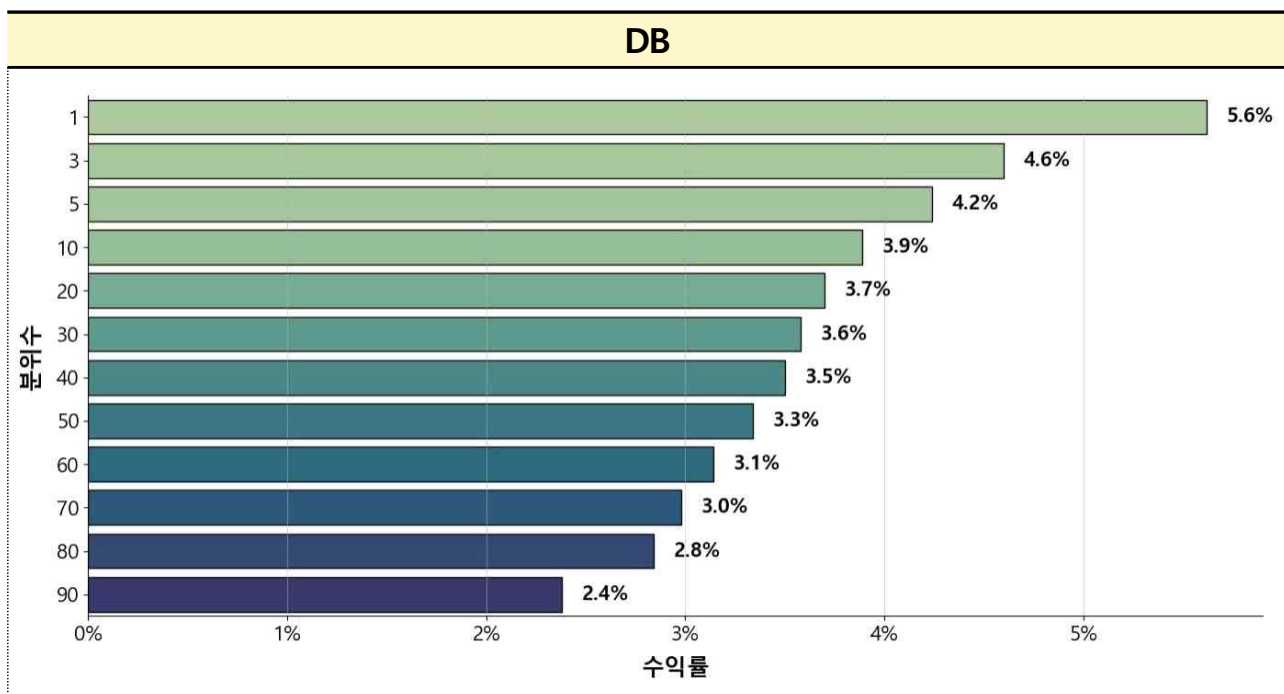
주) '24년말 기준 퇴직연금 운용관리사업자는 총 46개사(은행 13, 증권 15, 생보 11, 손보 6,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북은행·DB증권·하나생명은 운용관리 실적 없음

## 4. 수익률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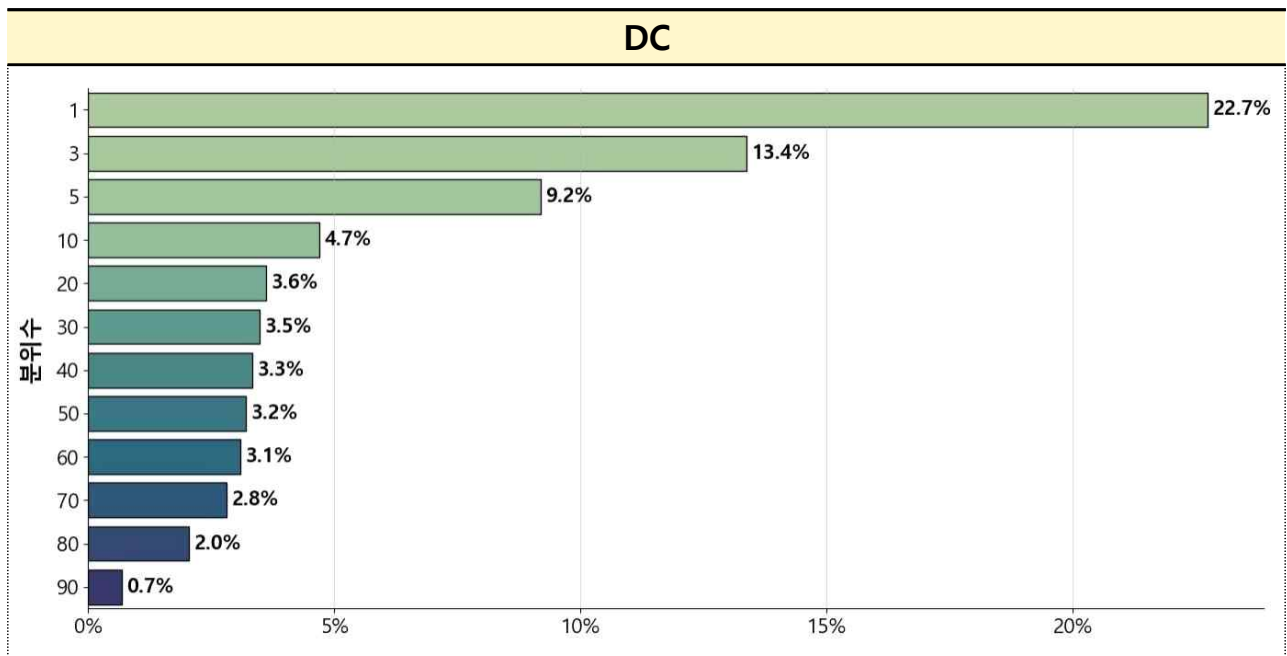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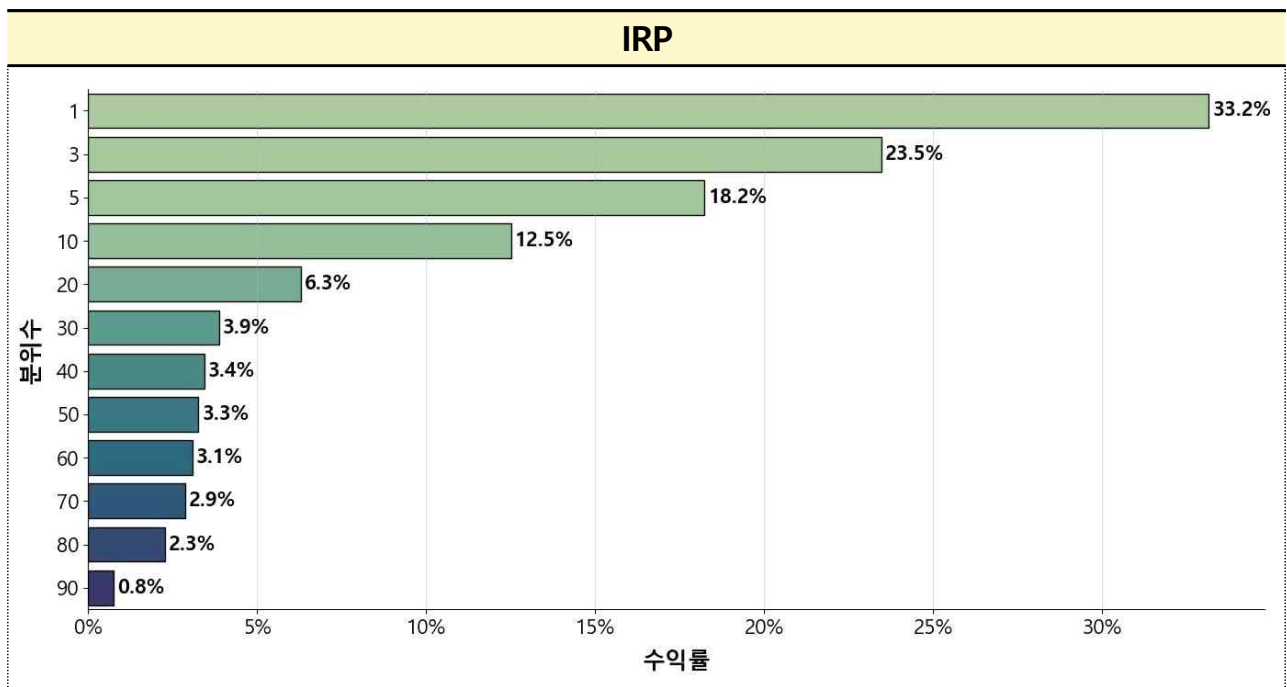
## 5. 분위수별 수익률 현황



☞ (예시) DB를 운용하는 사용자 100개사 중에서 상위 10등의 수익률은 3.9%



☞ (예시) DC 가입자 100명 중에서 상위 10등의 수익률은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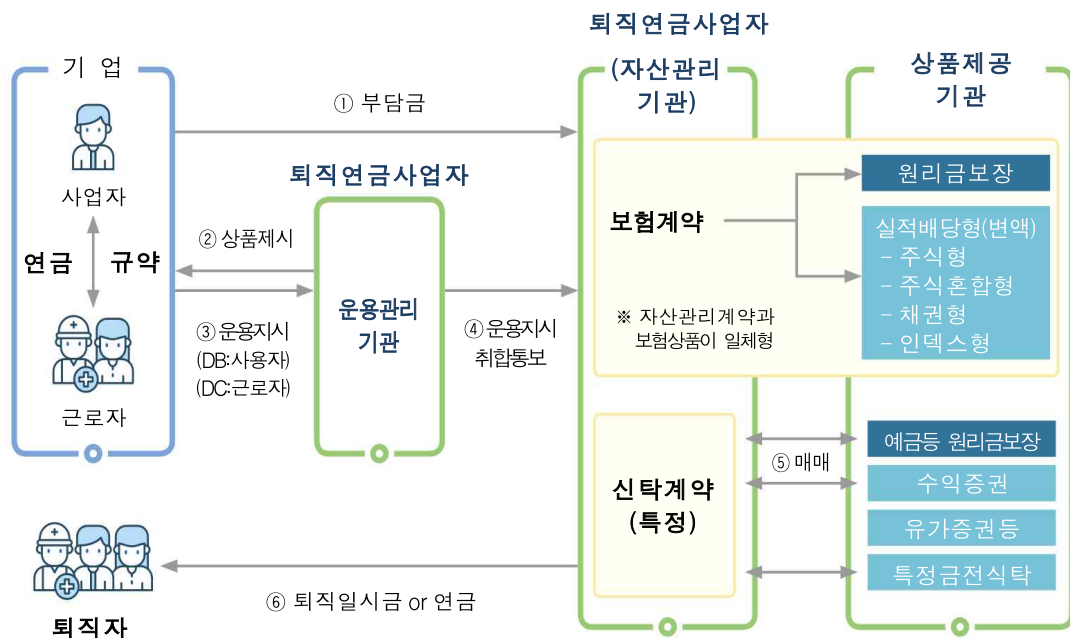


☞ (예시) IRP 가입자 100명 중에서 상위 10등의 수익률은 12.5%

□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혹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

□ 퇴직연금 사업자: 퇴직연금 운용관리,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급여가 확정급여 산출공식 (퇴직 시점 평균 임금 × 근속연수)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

- 사용자는 매년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며 자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사용자 부담금액이 확정기여 산출공식(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 사용자는 매년 임금의 1/12 상당 금액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납입,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급
- **기업형IRP:**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을 위한 특례 제도로, 근로자 동의하에 근로자별 IRP를 설정하고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 퇴직 시 수급한 퇴직 일시금을 은퇴시점까지 적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
- **수익률:**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을 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
  -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간 수익률은 직전 1년간 운용수익을 직전 1년간 평균 적립금총액에서 운용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
    - \* 단, 비용(수수료 등)은 적립금 총액 계산 시 제외
  - 3년, 5년, 7년, 10년 적립금 수익률은 연도별 운용수익률을 기하 평균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
    - \* N년 기준 기하평균 수익률  $R_n : [(1+r_1) \times (1+r_2) \times \dots \times (1+r_n)]^{(1/n)} - 1$
- **총비용부담률:**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총비용부담률을 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간 총비용부담률은 해당연도 총비용을 평균적립금으로 나눈 비율
    - \* 총비용 = 운용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 펀드 총비용
    - \*\* 평균적립금 = 매일의 적립금 합계액을 연간일수로 나눈 일평균적립금